〈이세돌 9단〉

〈구리 9단〉

신들의 전쟁 !

이세돌-구리, 세계 최강 2人 첫 결승 격돌

23일부터 'LG배 기왕전' 자존심 싸움 관심

세계 바둑계를 양분하고 있는 이세돌과 중국의 구리가 처음으로 결승 맞대결을 펼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나이와 프로 데뷔연도가 같고 통산 우승횟수, 지난해 전적 등이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 하지만 2004년 이후 많은 대회를 함께 참여했는데도, 결승 맞대결은 한 번도 없었다.

이들은 오는 23일 강원도 백담사 특별 대국장에서 열리는 제13회 LG배 세계기왕전에서 첫 결승 맞대결을 펼친다. 한·중 양국의 두 간판스타가 세계 1인자의 명예와 2억5천만원 우승상금을 걸고 정면 충돌한다.

현재 이세돌과 구리는 똑같이 현역 세계 3관왕이다. 한·중 양국의 랭킹도 나란히 1위이다. 이세돌은 현재 국내 타이틀 포함, 5관왕, 구리는 8관왕으로 군림 중이다.

양국이 겨루는 힘 대결도 팽팽하다. 한국은 삼성화재배·LG배·TV아시아(이상 이세돌)·중환배(이창호) 등 4개, 중국도 도요타덴소배·춘란배·후지쓰배(이상 구리)·잉씨배(창하오) 등 4개의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존심을 건 이 둘의 결투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세돌로선 LG배 사상 최초의 2연패(連霸)를 노리고 있다. 이세돌은 총 14회 세계대회 결승에 올라 12번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외국 기사와의 결승에선 져본 적이 없다. 구리도 네 차례 세계대회 결승전에 나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둘 간의 맞대결은 7승7패로 호각지세. 초기엔 이세돌, 중간엔 구리가 우세했다 최근 들어 다시 이세돌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군포 흥진초교, 세계 아마바둑 제패

방콕 세계청소년대회 전 부문 석권

경기도 군포 흥진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세계아마바둑대회를 제패했다.

13일 흥진초교에 따르면 이 학교 바둑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세계청소년바둑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주최국인 태국을 비롯해 한국, 중국, 대만, 미국 등 8개국에서 6~16세 94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흥진초교는 고단부(아마3단 이상), 저단부(아마1~2단), 고급부(아마1~4급)에 출전, 전 부문에서 우승했다.

고단부와 고급부에서 1~3위를 모두 휩쓸고 저단부에서는 우승과 준우승을 거머쥐면서 이들 3개 부문의 단체전 우승까지 독차지했다.

흥진초교는 2007년 2월 역시 방콕에서 열린 세계청소년바둑토너먼트에서도 개인전과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흥진초교는 2004년 9월부터 정규 교과시간을 활용해 매주 1시간 전교생에게 바둑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조기 발굴해 방과 후에 바둑영재반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둑도 스포츠다"

대한체육회, 한국바둑協 가맹단체로 승인

유소년·대학·시도별 실업팀 등 창설 기대

전국체전 정식종목 탄력 … 특기생 혜택도

바둑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2010년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한바둑협회가 대한체육회 정식가맹단체(이하 가맹단체)로 승인됐다. 바둑도 스포츠로 인정받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대한체육회에 가맹단체 승인을 받게 되면 대표팀 운영과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메달 획득에 따른 지원금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국체전 정식종목 채택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대학 체육 특기생 혜택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바둑협회도 전국체전 출전 등을 위해 광주시체육회에 가맹단체 신청을 마친 상태다.

13일 대한바둑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 열린 대한체육회 제25차 이사회에서 대한바둑협회가 가맹단체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가맹 규정상 각 경기단체장들의 모임인 대의원총회(19일)를 통과해야 하는 의례적 절차만 통과하면 바둑협회는 가맹단체가 된다.

지난 2001년 바둑의 체육화 작업을 시작한 지 꼭 8년 만의 성과이다. 또 2006년 5월 준가맹 경기단체가 된지 2년9개월 만이다.

가맹단체가 되면 일단 병역문제와 특기생 진학 등 여러 가지 특혜가 생긴다. 진학이 원활해지면 유소년 바둑인구도 늘어난다. 또 국군체육부대 바둑팀, 시도별로 실업팀, 대학팀 창설도 기대한다.

지금까지 바둑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이 아닌 동호인 종목이었으며, 바둑협회는 대한체육회 준가맹 상태였다. 이 때문에 전국체전에서 입선해도 타 종목에 비해 대학 진학에 큰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체육회 지원도 받기 힘들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바둑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외형적으로 바둑의 스포츠 시대가 시작됐다. 일본도 오래전부터 바둑의 올림픽 종목 진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등 바둑의 스포츠화가 바둑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국내 프로기사의 문이 좁다 보니 수많은 유망주가 바둑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9명만을 프로기사로 선발하고, 바둑 특기생을 뽑는 대학도 명지대학교, 대불대학교 등 극소수여서 유망주들이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망주가 하루 10시간씩 연습하고도 20세 무렵에 프로의 길을 포기, 아마추어로 남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이다.

광주바둑협회 정찬근 전무이사는 "가맹단체가 되고 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 점수를 따기 위해 각 시도가 팀을 창단하는 등 국내 바둑의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최근 대한바둑협회가 대한체육회 정식 가맹단체로 승인됐다. 사진은 지난해 중국에서 열렸던 '제1회세계마인드스포츠게임즈' 남자 단체전 모습. 〈사이버오로 제공〉

비씨카드, 월드바둑 챔피언십 프로암대회 개최

비씨카드가 주최하는 제1회 월드바둑 챔피언십 프로암 대회가 열린다.

비씨카드는 "오는 27일 서울시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1회 비씨카드배 월드 바둑 챔피언십 프로암 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암 대회에는 VIP 64명과 대회 본선 진출자 64명 등 모두 128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총상금은 7억4천200만원.

/오광록기자 kro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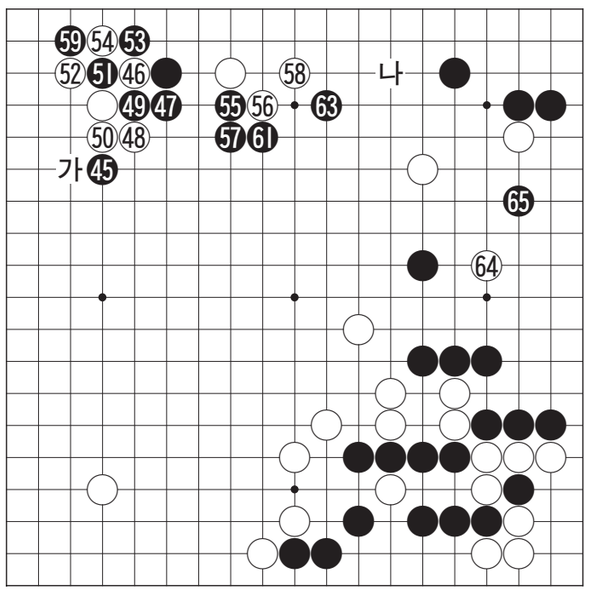
제5회 서구청장배 바둑대회

'성급한 해소'

최강부 1회전 4보 (45~65)

白 선계성 6단 〈문성고 2〉

黑 노기철 5단 〈전자공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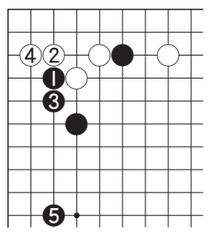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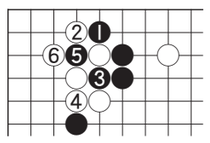
노기철 5단이 심기일전하여 흑 45로 협공했는데 여기에서 선계성 6단은 47에 두어 흑 한점을 제압하지 않고 백 46에 두어 또다시 싸움을 걸고 나선다.

이때 흑이 '참고도1'의 흑 1로 두고 3으로 당긴 다음 5로 벌리면 무난하다. 그러나 전투를 좋아하는 노기철 5단은 즉각 흑 47로 늘어 일전불사를 외치고 있다.

흑 49는 속수였다. 이 수로는 '참고도2'의 흑 1로 먼저 젖히고 3으로 단수치는 것이 바른 수순이다. 실전과 똑같은 형태같지만 실전은 백 52 다음 54로 몰지않고 59에 내려설 수가 있으니 큰 차이다.

노기철 5단은 흑 57까지 머리를 내밀어 둔 다음 59로 끊어 강력하게 패로 덤볐는데 이 수는 성급한 수로 그냥 '가'로 내려서서 동태를 살피고 싶다.


〈참고도 1〉


〈참고도 2〉

선계성 6단은 귀찮은지 흑 61에 패를 해소해 버렸는데 일단은 '나'로 벌려둘 곳. 흑 63까지 바꿔치기가 되어 흑이 성공한 모습이다. 60-46, 62-51.

김성래 4단 '21세기 신 정석과 포석' 출간

한국기원 소속 김성래 4단이 '21세기 신(新) 정석과 포석' 2권을 출간했다. 1권 출판 이후 2년 만에 등장한 후속 시리즈다.

2007~2008년 동안 한국 프로 바둑계는 정석과 포석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었고, 프로 대국에서 수많은 새로운 포석이 등장했다.

이번에 나온 2권에서는 2007~2008년에 등장한 프로 대국의 실전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그에 파생되는 변화를 상세히 분석했다.

앞서 나온 1권은 미국 유토피안 출판사에 의해 번역·출판됐으며, 발매 한 달 만에 1천여 권이 판매되는 등 전 세계 바둑 마니아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2권 역시 영어판 출판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의 02-2291-1912. 〈글로벌 바둑·1만5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합격은 김영에서
전대편입특설반/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의·약대편입/ 의·치약전문대학원
★ 2010년 김영스쿨 신입생모집
편입관련 문자상담 010-7766-1254
www.kimyoung.co.kr
그동안 12만 5천여명 편입합격!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바로 뒤 (062)227-8088
2010학년도 편입대비
- 2010학년도 편입대비
- 기초부터 알기쉽게
- 편입영어 입문 및 기본과정
- 문법, 독해, 어휘 MT(조별토론학습)
대학편입 대개강 : 3월 2일

★★★ 불황을 이겨내는 방법? 전문자격증 준비!! ★★★
공인중개사 10월 25일 시험
여성 최고의 유망 전문직 아파트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9월 20일 시험
大개강 3월 2일 (첫진도 시작반)
최강의 교수진 "저자직강" 전원 서울에서 출강!
직장인 수강료 환급 국비지원 선착순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전남여고 맞은편 3층
첨단점 ☎ 971-0002 광주은행 첨단점 4층

= 앞서가는 수험생들의 선택! "역시" 無等이었다. =
7·9급 공무원 對備 전문
9급 문제풀이반 4주 완성 수시접수
국가+지방직 숲직렬이론반 성황리강의중
(영어 없는) 10급 기능직 □일반상식 □한국사 박한철 교수
=올 지방직 채용인원=
• 서울903, 부산236, 대구100, 인천383, 광주119
• 대전105, 울산66, 경기685, 강원160, 충북162
• 충남198, 전북206, 전남309, 경북214, 경남316
개강 매월 1일과 15일(주·야간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소방직 • 사상최다모집예정 • 단독반: 이명호 교수님
• 서울 300, 부산 82, 대구 94, 인천 277, 광주 92
• 대전 78, 울산 42, 경기 273, 강원 179, 충북 113
• 충남 188, 전북 120, 전남 280, 경북 128, 경남110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